

눈앞에 펼쳐진 현상세계 그대로가 쉼

태안사 원각선원장 일오 스님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인 9-10세기, 당나라에 들어가 법을 구한 선승들이 귀국해 개산한 선종의 아홉 산문을 일컫는 구산선문(九山禪門). 구산선문의 전거는 교학불교의 한계를 뛰어넘어 훗날 선교결수(禪教兼修)의 수행전통을 확립하는 밑거름이 됐다.

현재 구산선문 가운데 선종 사찰로서 명맥을 이고 있는 곳은 흥척 국사가 남원군 산내면에 개산한 실상산문, 해철 국사가 곡성군 죽곡면에 개산한 동리산문, 도현 국사가 문경군 가운데에 개산한 회양산문이 있다.

4월 26일, 9년 만에 다시 찾은 동리산문 태안사(주지 각임)의 호젓한 산길은 여전히 비포장 도로로 남아 있었다. 840년 지방도로에서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약 2km 정도의 길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담백한 아름다움으로 걷기 좋은 길이다. 신라 경덕왕 원년(724년)에 해철 선사가 창건한 태안사는 인근의 화엄사와 송광사를 말사로 거느릴 정도의 거찰이었지만 지금은 선원 위주로 운영되는 조용한 수행도량이 됐다. 태안사 하면 떠오르는 선지식은 정화 스님(1924-2003). 1985년 태안사 주지를 맡은 정화 스님은 절을 중창하고 열불선을 선양하며 동리산문의 선

내가 무슨 법문을 한다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인터뷰를 거듭 사양하며 차나 마시고 가라는 일오 스님에게 이런 때일수록 스님들의 안심(安心)법문이 더욱 절실하다며 간곡히 법문을 청하니, 스님은 이윽고 웃으며 응낙하신다.

“일반 불자들은 격외도리(格外道理)를 담은 큰스님들의 선법문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초기불교를 곁들이며 선 도리를 설법해 불자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특히 연기법을 강조하시는데, 그 까닭이 궁금합니다.

“격외도리를 아무리 잘 설하고 선문답을 아무리 기상천외하게 하더라도 무심(無心)이 되지 않은 사람은 지해종사(知解宗師)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연기(緣起)를 보는 자 나를 본다’고 했듯이, 연기란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이기엔 꼭 알아야 합니다. 연기의 근본은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으로, 견성과 무아의 도리를 깨닫는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연기는 일체의 존재가 인연화합으로 생긴 것이라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존재하는 줄 알고

초기불교의 사띠는 간화선의 성성적적하는 것

존재의 실상 바로 보는 연기는 중요한 가르침

종을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종무소에서 잠시 머문 후, 15분 정도 소요되는 산길을 따라 명적암에 올랐다. 이곳에 주석하며 수좌들을 지도하고 있는 원각선원 선원장 일오 스님은 2004년 서울 상도동 보문사에서 열린 7인 선사 법회에서 처음 대중 앞에 등장해 선법문을 펼쳐 많은 수행자들에게 환희심을 준 선승이다. 1965년 출가한 이래 오로지 제방선원에서 수행에만 매진해 온 일오 스님은 초기불교를 바탕으로 한 자상한 선법문으로 난해한 선(禪)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스님은 대중설법보다는 선원에서 수좌들과 함께 정진하며 먼 길을 찾아오는 구도자들을 상대로 길을 안내하는 역할에 자족해 왔다. 이번 방문은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어하는 여러 불자들의 뜻을 모아 그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대신 전달하고 싶은 여망을 담아 이뤄진 셈이다.

“천안함 침몰 사고로 나라가 초상집 분위기인데, 집착하면서 ‘나’ 분위로 살다 보니 탐진치에 끄달려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를 미진축망(迷眞逐妄) 또는 ‘미기축물(迷己逐物)’이라고 합니다. 망상에 빠져 진리를 잃고 해만다. 물질인 대상에 정진이 팔려 자기를 잃고 해만다 뜻입니다. 일체 현상세계 실체가 없음이 마치 꿈,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 같은 [如夢幻泡影] 줄 알기 되면 속지 않게 됩니다.”

“연기를 공 도리로 풀이한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연기의 도리는 팔만대장경의 근본 뜻을 함축한 반야심경 260자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견 오온개공 도일체고액(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 즉,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와 액을 넘어섰다고 하는 법문이 핵심입니다. 오온은 바로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인데, 이것은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육근(六根: 주관이 육경(六境: 객관을 접촉해서 육식(六識: 인식작용)이 일어난 것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고,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인양 살아갑니다. 이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연기설법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것이 환상이요 꿈인 줄 아는 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무아나 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고, 보살의 만행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即是空 空即是色)’이라고 해놓았지요. ‘오온개공(五蘊皆空)’이 이해가 안 되니까 색과 공이 틀어박혀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연기 즉 공’이라 하니 물질을 다 없애진 상태가 공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질이 나쁜 색 이대도가 공 공인 것입니다. 인연화합 되어 눈앞에 펼쳐진 현상세계 그대로가 공이란 말입니다. 무아, 공이라고 해서 아무 것도

“부처님께서도 깨달음 이후에 늘 위빠사나로 마음챙김을 하셨는데, 참선할 때 잠든 이후의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깊이 잠이 든 때도 한결 같아야 한다는 숙면일여(熟眠一如)를 말하지만, 숙면의 상태에서는 의식이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이 든 상태에서 공부한다기 보다는, 평소의 마음챙김이 한결같아서 잠들기 직전 알아차림이 잘 가다듬어 있다면 숙면일여가 가능합니다. 잠들기 전에 화두가 잘 들려있으면,

일오 스님은...

1943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스님은 1965년 월인 스님을 은사로 함양 상연대에서 출가했다. 1971년 화엄사에서 도광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고, 1973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7년 강진 만덕사, 1992년 사천 구룡사에서 잠시 주지 소임을 살았지만 행자시절부터 줄곧 전국의 선방에서 안거에만 매진해 왔다. 부안 월명암 사성선원장을 맡은 후 5년 전부터 곡성 태안사 원각선원장을 맡아 선종 진적에 앞장서고 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정불변의 실체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아를 말하면서 부득이 진아(眞我)를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위빠사나 수행자들은 간화선이 경전적인 근거가 없는 수행법이라며 비판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수행법의 공통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초기불교나 대승불교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인데, 잘못 보니까 오해를 하고 서로 비방하는 입을 짓는 것입니다.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사띠(四諦) 즉, 마음챙김은 내 본래 마음자리를 놓치지 않고 잘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간화선으로 말하자면 성성적적(惺惺寂寂: 고요하고도 포뭇한 마음상태) 하기 위해서 마음챙김을 하는 것입니다. 본래면이니 주안공이니, 한물건이니, 참나라고 하는 말은 찾아야 할 그 무엇이 따로 있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붙인 명칭에 불과합니다. ‘사띠’라는 것은 항상 드러나 있는 보고 듣고 말하고 감각하는 이 마음자리를 마음챙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요놈’을 바로 보라는 말입니다. 일체 스님이 ‘다만, 그대를 눈앞에서 작용하는 그것,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고 어딜 가든지 의심할 것 없는 그것이 바로 살아 있는 문수다’ 라고 한, ‘눈앞에 별거 벗은 한 놈’입니다. 눈앞에 드러난 이 마음을 늘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찰나찰나 생멸을 거듭하는 ‘거짓 나’를 마음챙김함으로써 육근·육진으로부터 벗어난 참나로 홀로서기 하는 것이 수행인 것입니다.”



**이름다운연꽃!
향기로운연꽃!
집에서 키워 보세요.**

보현선원에서 연꽃새싹을 불자님께 무료로 분양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꽃 등 밝히듯 내 마음도 연꽃같이 되길 발원하며 예쁘게 키워 보세요.

'5월 14일(음, 4월 1일) 오전 10시' 부터 선착순으로 나누어 드립니다.
(사월 초파일 연등 접수 합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4동 1184-3 국악고등학교 정문 앞 보현선원 02)579-3690

**“태양은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진다.
항상 떠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즐겨라”**

세계가 인정하는 특별한 영화!
명사의 일상에 묻어나는
진솔한 대화가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달라이 라마의 위대한 하루

선라이즈 선셋

SUNRISE/SUNSET

5월 13일, 전국 CGV와 primus 대개봉 www.prevision.kr

CGV 강변/상암/동수원/청주/대구/구미/울산/포항/마산/서면/동래 프리머스 원주/인동/칠곡 수원/배급 프리비전 엔터테인먼트 *전매권자